

## 先發明主義의 喜悲

—先願主義에도 缺陷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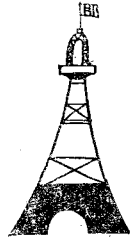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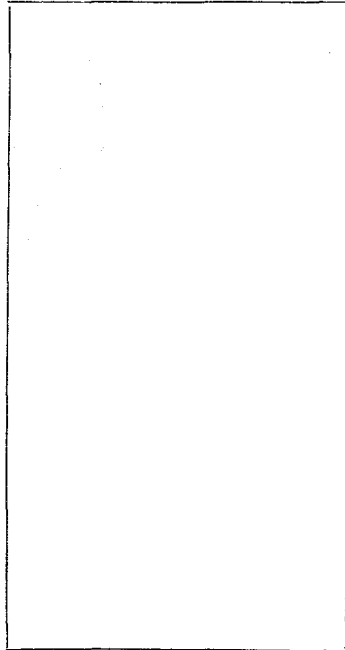
20年 以上이나 걸린 特許紛爭의 實例이다.

美國의 암스트롱(1890~1954)은 24歲때 3極管을 使用하여 高周波의 電波電流를 增幅할 때에 증폭되어 나오는 프레드전류의 一部를 코일의 組合으로서 구릿드에 되돌리면 증폭이 더 잘된다는 論文을 專門誌에 掲載하고 再生回路를 利用한 增幅裝置와 發振裝置를 特許出願하였다.

한편 포레스트도 3極眞空管을 發明하고 電話의 音聲電流를 증폭하는 장치를 發明하여 無線電信에 쓰는 재생회로를 특허출원하였다. 물론 포레스트가 後出願이다.

미국은 先發明主義이므로 體系的으로 技術開發者들은 每日 日誌를 整理하고 自身の 署名은 물론, 關係者들의 서명도 받게끔 되어 있다. 各 記念館에는 有名한 發明人, 例를 들어 에디슨이나 벨이 서명한 연구 일지가 陳列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포레스트가 參證資料로서 자기의 옛 實驗노트를 提示하여 先발명을 주장하였다.

이 訟事의 內容인즉 2極眞空管이 풀레밍의 발명으로서 말코니會社의 所有權利였으므로 3極眞空管도 포레스트가 풀레밍의 特許權을 侵害했다고 提訴하였다. 결과는 구릿드는 포레스트의 권리이고 필라멘트



자의 보호와 去來의 安全, 그리고 권리의 法的 安定이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先願主義에도 日時의 差異가 勝敗를 판가름하는 缺點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더욱 合理的인가에 대하여 明確한 區分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 和解로 매듭지은 쏘니事件

—쏘니·초콜렛과 쏘니社 紛爭—

쏘니商標의 和解劇 한토막. 日本에는 電機메이커에서 始發한 쏘니 상표가 있으며 이미 國際적으로 著名化하고 있다.

이 상표의 著名度를 이용하여 菓子商이 쏘니·초콜렛을 製菓해서 販賣하는 한편 社名도 쏘니·후드로 登記와 아울러 상표도 登錄했다.

그러나 著名성이 있는 쏘니會社는 菓子類에 상표를 出願登錄하지 않고 있었다. 不正競爭防止法을 適用하여 訴訟이 벌어졌으나 결국은 和解로 끝나고 말았다. 商標法의 虛點을 이용한 商標紛爭은 궁색하게도 부정경쟁방지법의 緩用을 呼訴해야 했고 最善의 길이 화해로 매듭지어진 것이다.

는 풀레밍의 권리에 屬한다고 判決되어 3극진공관의 특허권은 양쪽이 모두 使用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포레스트와 암스트롱의 분쟁은 第1回判決에서는 암스트롱의 勝訴하고 포레스트는 敗訴와 더불어 一切의 권리를 ATT에 賣渡하였다.

승소한 암스트롱은 아메리카말코니에 그 특허를 팔았으므로 이 특허분쟁은 암스트롱에 代替하여 아메리카말코니와 포레스트대신에 ATT의 싸움이 되었으나 大法院은 1928년, 그동안 파결을 뒤엎고 포레스트의 승소를 결정하는 한편 1934년에도 같은 판결을 하여 포레스트의 특허권을 확정시켰다.

이 승사의 歷程으로 보아 선발명주의에도 複雜한 事件이 일수 있다는 實證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발명